

제 112 회

#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lt;예시&gt;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 제112회 한자실력급수 [ 사범급 ] 문제지

## 객관식 (1~50번)

※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 翅 ] ① 些 ② 紆 ③ 冗 ④ 偲
2. [ 匯 ] ① 蛔 ② 卉 ③ 篋 ④ 椎
3. [ 阻 ] ① 舛 ② 釵 ③ 倜 ④ 胙
4. [ 叭 ] ① 阤 ② 辦 ③ 捌 ④ 唄
5. [ 蠱 ] ① 顛 ② 翱 ③ 育 ④ 獠

※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 宸 ] ① 呻 ② 矧 ③ 振 ④ 蓋
7. [ 熾 ] ① 饅 ② 囍 ③ 呶 ④ 諱
8. [ 滸 ] ① 縞 ② 葫 ③ 誥 ④ 瓠
9. [ 杳 ] ① 渺 ② 眇 ③ 眇 ④ 鈔

※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 滓 ] ① 潢 ② 渣 ③ 淆 ④ 淘
11. [ 婆 ] ① 姣 ② 娉 ③ 媪 ④ 媠
12. [ 瘳 ] ① 癩 ② 痊 ③ 疱 ④ 瘞
13. [ 跛 ] ① 蹕 ② 睬 ③ 跣 ④ 蹇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糜 ② 廬 ③ 廩 ④ 庇
15. ① 渠 ② 汞 ③ 滕 ④ 鴻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喀痰 : 각담 ② 目睹 : 목도  
③ 芹誠 : 근성 ④ 歇后 : 혈후
17. ① 輜重 : 치중 ② 坼甲 : 척갑  
③ 侏儒 : 주유 ④ 聲嘶 : 성시
18. ① 諂過 : 도과 ② 鞦韆 : 추천  
③ 罌粟 : 영숙 ④ 象嵌 : 상감
19. ① 雙眸 : 쌍모 ② 徭役 : 유역  
③ 憔悴 : 초취 ④ 楯形 : 순형
20. ① 鴟梟 : 치효 ② 涅槃 : 열반  
③ 石鏃 : 석촉 ④ 笮串 : 갈환

※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부끄럽고 [ 창피 ]해 더 이상 앓아 있기가 거북스럽다.  
① 猖披 ② 暢披 ③ 猖披 ④ 暢披
22. 그녀들은 [ 전족 ]으로 자라지 못한 발로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움직이고 있었다.  
① 纏足 ② 佃足 ③ 填足 ④ 塹足
23. 범인은 [ 화염병 ]과 불발한 포탄도 갖고 있었다.  
① 火剌瓶 ② 火焰瓶 ③ 火剌鉗 ④ 火焰鉗
24. 잔디밭 가장자리에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 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었다.  
① 標識板 ② 標指版 ③ 標識版 ④ 標指板
25. [ 신기루 ] 현상은 공기의 밀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① 佻氣樓 ② 燼氣樓 ③ 腎氣樓 ④ 蜃氣樓
26. 허위 고소는 [ 무고죄 ]의 대상이 된다.  
① 巫告罪 ② 誣辜罪 ③ 巫辜罪 ④ 誣告罪
27. 경제 [ 공황 ]은 일정한 주기성을 지닌다.  
① 恐慌 ② 控愧 ③ 恐愧 ④ 控慌

※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조선 시대에는 봉화나 [       ]이 주요한 통신망이었다.  
① 扞踊 ② 涉獵 ③ 擺撥 ④ 率倡
29. 도회청 앞에는 각색 기치 외에 [       ]와/과 창검을 벌여 세웠다.  
① 賄賂 ② 耘鋤 ③ 禿髮 ④ 斧鉞
30. 역대의 왕조들은 제왕의 덕을 기리며 태평성대를 [       ]하는 궁중 음악을 발달시켰다.  
① 玩繹 ② 懊惱 ③ 謳歌 ④ 篡奪
31. 그는 성미가 [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① 俾倪 ② 癍痕 ③ 剛愎 ④ 篩骨
32. 실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명목적 가치를 무조건 [       ]하는 경향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① 貶下 ② 反芻 ③ 圍繞 ④ 行悖
33. 최근 들어 경기가 되살아나니까 음식 장사가 가장 [       ]하다.  
① 虹霓 ② 貽笑 ③ 陟岵 ④ 殷賑

34. 산속에서 밤이 깊어지자 나는 [       ]의 무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 ① 唐椒 ② 鏑鎗 ③ 豺狼 ④ 薊丘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

- ① 安謐 ② 阡陌 ③ 乍晴 ④ 擅橫

36.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 ① 翟衣 ② 駱駝 ③ 薨逝 ④ 溪嵐

37. 제본할 때 페이지 순서대로 인쇄된 종이를 접음.

- ① 薄紙 ② 裹紙 ③ 燒紙 ④ 摺紙

38.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 ① 糟粕 ② 敗頹 ③ 筐舉 ④ 殫竭

39. 낡은 형겁을 모아 기워 만든 승려의 옷.

- ① 繡衣 ② 胴衣 ③ 衲衣 ④ 擎衣

40. 남이 잘한 것을 과장되게 칭찬하여 천거함.

- ① 顛頊 ② 吹噓 ③ 澱物 ④ 苧布

41. 사정, 형편, 방법 따위를 헤아려 계획함.

- ① 中脘 ② 柳絮 ③ 籌劃 ④ 淵藪

※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 走獐落兔 ]

- ① 일을 피하다가 도리어 밀친까지 잃음.  
 ② 뜻밖의 이익이 생김.  
 ③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④ 교묘하게 잘 숨어 재난을 피함.

43. [ 破甑 ]

- ① 여러 사람이 같은 행사 때에 쓰려고 찾은 물건을 이르는 말.  
 ② 중국 사람들이 추석에 만들어 먹는 둥근 밀가루 과자.  
 ③ 이러쿵저러쿵 말하여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  
 ④ 계율을 어기면서도 부끄러워함이 없음.

44. [ 麻中之蓬 ]

- ①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머리털이 속대강이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③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  
 ④ 예전에 선비가 입던, 옆이 넓게 터진 도포.

45. [ 噬臍莫及 ]

- ① 제 허물을 제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남이 알게 된다는 말.  
 ②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③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르는 말.  
 ④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居士有鏡一枚러니 塵埃①칠식하여 掩掩如月之翳雲이라 然朝夕覽觀에 似若飾容貌者러라 客見而問曰 鏡所以鑑形이니 不則君子對之에 以取其淸이어늘 今吾子之鏡은 濛如霧如하여 既不可鑑其形이요 又無所取其淸이라 然吾子尙炤不②已하니 豈有理乎아 居士曰 鏡之明也는 妍者喜之하고 醜者忌之라 然妍者少하고 醜者多라 若一見이면 必( ㉠ )後已니 不若爲塵所昏이라 塵之昏은 寧飾其外언정 未③喪其淸이라 萬一遇妍者而後에 磨拭之라도 亦未晚也라 噫라 古之對鏡은 所以取其( ㉡ )이요 吾之對鏡은 所以取其( ㉢ )이니 子何怪哉오 客이 無以對러라

〈東國李相國集〉

46. ①을 문맥에 맞게 쓴 것은?

- ① 砧蝕 ② 浸蝕 ③ 沈蝕 ④ 侵蝕

47. 문맥상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이미 ② 그치다 ③ 뿐이다 ④ 너무

48.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掃除 ② 容貌 ③ 破碎 ④ 磨拭

49.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의 뜻과 같은 것은?

- ① 喪服 ② 得喪 ③ 心喪 ④ 問喪

50. 문맥상 ㉡와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 淸, ㉢: 昏 ② ㉡: 容, ㉢: 心  
 ③ ㉡: 心, ㉢: 容 ④ ㉡: 昏, ㉢: 淸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驄 ( )
- 주2. 藁 ( )
- 주3. 楸 ( )
- 주4. 贍 ( )
- 주5. 綻 ( )
- 주6. 攷 ( )
- 주7. 箔 ( )
- 주8. 苕 ( )
- 주9. 饅 ( )
- 주10. 儻 ( )
- 주11. 髻 ( )
- 주12. 鎔 ( )
- 주13. 氓 ( )
- 주14. 圮 ( )
- 주15. 罔 ( )
- 주16. 贇 ( )
- 주17. 砗 ( )
- 주18. 桴 ( )
- 주19. 僊 ( )
- 주20. 烝 ( )
- 주21. 攀 ( )
- 주22. 悵 (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豚 ( )
- 주24. 脩 ( )
- 주25. 壻 ( )
- 주26. 繇 (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아름다울 성 ( )
- 주28. 학질 학 ( )
- 주29. 눈꺼풀 검 ( )
- 주30. 가슴 억 ( )
- 주31. 흠여질 환 ( )

- 주32. 질낮은명주실 흘 ( )
- 주33. 마실 철 ( )
- 주34. 넓을 회 ( )
- 주35. 잠방이 곤 ( )
- 주36. 말오줌때 삭 (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靄 煉 碧 澍 炬 搨 撮 黔
------	-----------------

- 주37. ○影 ○印 ○本 ( )
- 주38. ○濡 ○均 ○濕 ( )
- 주39. ○眼 植○ ○燭 ( )
- 주40. ○炭 ○黎 ○首 (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闡揚 ( )
- 주42. 餘瀝 ( )
- 주43. 剿滅 ( )
- 주44. 陰翳 ( )
- 주45. 蟬鬢 ( )
- 주46. 連翹 ( )
- 주47. 銳嘴 ( )
- 주48. 蠹簡 ( )
- 주49. 忖度 ( )
- 주50. 匍匐 ( )
- 주51. 矮軀 ( )
- 주52. 牢饒 ( )
- 주53. 銜耀 ( )
- 주54. 綽楔 ( )
- 주55. 悉曇 ( )
- 주56. 快擲 ( )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새로 개업한 식당 앞에서 피에로로 [분장]한 남자가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 )
- 주58. 인부들은 누구의 지시가 없어도 하루의 작업량을 [분장]하여 일을 하였다. ( )
- 주59. [영악무도]한 침략자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 )
- 주60. 동생은 내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영악]스럽게 웃었다. (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그는 자신의 演奏에 到醉하여 멈출 줄을 몰랐다. (            →            )
- 주62. 홀 안벽의 壁煖爐에서 통나무 長灼들이 불꽃을 너울대며 훨훨 타고 있다. (            →            )
- 주63. 그 유물은 龐大한 지역에 걸쳐서 發掘되었다. (            →            )
- 주64. 勞組의 指導部는 綴夜 籠城에 들어갔다. (            →            )
- 주65. 정부는 국민 經濟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未礮地 開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

※ 풀이에 맞게 [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틈입]: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감. (            )
- 주67.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주68. [빈궁]: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세자나 왕세자빈의 관을 두던 곳. (            )
- 주69. [위집]: 고슴도치의 털같이 사물이 한꺼번에 번잡하게 모여듦을 이르는 말. (            )
- 주70. [조타]: 배의 키를 조종함. (            )
- 주71. [철책]: 쇠로 만든 울타리. (            )
- 주72. [서열]: 서자 열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 주73. [참칭]: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임금이라 이룸. (            )
- 주74.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 (            )
- 주75. [손색]: 다른 것과 견주어 보아 못한 점. (            )

※ 문장 속 [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贅사]가 너무 길다. (            )
- 주77. 치아의 주된 기능은 [저작] 기능이다. (            )
- 주78.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삼투] 현상에 의해 몸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와 죽게 된다. (            )
- 주79. 상황을 좀 더 세세히 [파악]한 후에 결정합시다. (            )
- 주80. 이 시를 악곡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의 [산삭]과 첨가가 필요합니다. (            )
- 주81. 그 폭격기에 [탑재]된 공대지 미사일의 명중률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            )
- 주82. 장기간 부신 피질 호르몬제나 [이노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            )
- 주83. 할머니의 시신에 반함하고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싸 묶어 [염습]을 마쳤다. (            )
- 주84. 그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나에게 [중용]했다. (            )
- 주85. 급기야 이들은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            )
- 주86. 어머니는 아픈 나를 위해 [전복죽]을 쭈어 주셨다. (            )
- 주87. 그 선원은 바다 밑의 [암초]까지도 훤히 알고 대비할 정도로 이력이 붙었다. (            )
- 주88. 그는 [빈사]의 갈림길에서 이웃의 도움으로 소생하였다. (            )
- 주89. 등산객들은 [능선]을 타고 산을 내려갔다. (            )
- 주90. 형은 [첩모]가 눈을 찔러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 (            )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琪花○草]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 같이 아름다운 꽃. ( )
- 주92. [○破門闕] 인재를 등용할 때 문벌을 가리지 아니함. ( )
- 주93. [南橋北○]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주94. [輻輳并○] 한곳으로 많이 몰려듦을 이르는 말. ( )
- 주95. [一○千金] 힘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
- 주96. [邯○之步]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 ( )
- 주97. [繁文○禮]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 ( )
- 주98. [吮○舐痔]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함을 이르는 말. ( )
- 주99. [○然開悟] 모르던 일을 갑자기 깨달음. ( )
- 주100.[一覽○記] 총명하고 기억을 잘함을 이르는 말. (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그는 일처리가 어찌나 [有耶無耶]한 지 빈틈이 없다. ( )
- 주102. 이른바 10만 대군이 [風飛雹散]해서 총지휘관의 사열을 받았다. ( )
- 주103. 하늘을 뒤덮은 [萬丈紅塵] 속의 싸움터에서는 총성만이 들려왔다. ( )
- 주104. 자식은 항상 [菽水之供]의 효도를 다 해야 한다. ( )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그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거칠어서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니, 마치 [산에 사는 꿩과 들오리]와 다를 바가 없다. ( )
- 주106. 그는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 )
- 주107.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국은 [깃발을 눕히고 북소리를 그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피해 복구에 전념했다. ( )
- 주108. 자꾸 [거짓말을 퍼뜨려 사람들 마음을 선동하지] 마라. (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賽神萬明 ( )
- 주110. 汗牛充棟 ( )
- 주111. 畫龍點睛 ( )
- 주112. 蕭牆之變 (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緩驅緩驅 牡牛之步 ( )
- 주114. 牛耳讀經 何能諦聽 ( )
- 주115. 一日之狗 不知畏虎 ( )
- 주116. 兒在負三年搜 (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以寧爲苟而亦又如與須雖尙且

- 주117. 禮○其奢也 ○儉 《論語》  
( , )
- 주118.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格 《論語》  
( , )
- 주119. ○非吾之所有 ○一毫而莫取 《赤壁賦》  
( , )
- 주120. 陸行千里 不○舟行萬里之○便利也 《北學議》  
( ,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便育卑此定覆靜善行致安至良

- 주121. 君子之道 辟如○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 《中庸》  
( , )
- 주122. 舟○乃見善游 馬奔乃見○御 《淮南子》  
( , )
- 주123. ○中和 天地位焉 萬物○焉 《中庸》  
( , )
- 주124. 心○茅屋穩 性○菜羹香 《明心寶鑑》  
( ,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 ]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주125. [人人人常善聖無棄故救] 《老子》  
국역: 성인은 늘 남을 잘 구원해주기 때문에 버려둔 사람이 없다.  
( )
- 주126. 夫賢士之處世也 [錐處之中若譬囊] 《史記》  
국역: 무릇 어진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송곳이 자루 안에 있는 것과 같다.  
( )
- 주127. [偕之與欲民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孟子》  
국역: 백성들이 그와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비록 누대와 연못, 새와 짐승이 있다 하나 어찌 혼자서 즐길 수 있으리오.  
( )
- 주128. [已飲而食不美飢救甘可] 《擊蒙要訣》  
국역: 음식은 달고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뿐이다.  
( )

-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 주129. [溫溫恭人 維德之基] 《詩經》  
( )
- 주130. [天生蒸民 有物有則] 《詩經》  
( )
- 주131.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擊蒙要訣》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杜甫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碁局 稚子敲針作㉡조구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

(나) <湄江歌> - 林悌  
湄江兒女踏春陽 江上垂楊正㉣단장  
㉤無限煙絲若可織 爲君裁作舞衣裳

(다) <題㉥가야산讀書堂> - 崔致遠  
狂噴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 주132. ㉠에 들어갈 한자어를 (가)에서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33.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34. ㉢을 국역하시오. ( )
- 주135.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36. ㉤을 국역하시오. ( )
- 주13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38. ㉦을 국역하시오. ( )
- 주139. ㉧을 국역하시오.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郡守大驚異之하여 自往勞其兩班하고 且問償糴狀이라 兩班㉠전립衣短衣하고 伏塗謁稱小人不敢仰視하니 郡守大驚 下扶曰 足下何自貶辱若是오 兩班益 恐懼하여 頓首俯伏曰 ㉡황송이라 小人 非敢自辱오 ㉢已自鬻其兩班以償糴하 니 里之富人乃兩班也라 小人復安敢冒 其舊號而自尊乎아 郡守歎曰 君子哉 富人也여 兩班哉富人也여 富而不吝하 니 義也오 急人之難하니 仁也라 ㉣惡卑 而慕尊하니 智也라 此眞兩班이라 雖然이 나 私自交易而不立券하면 訟之端也라 我與汝約하리니 郡人而證之하고 立券而 信之하되 郡守當自署之리라고 於是에 郡守歸府하여 悉召郡中之士族及農工 商賈하여 悉至于庭하고 富人坐鄉所之 右하고 兩班立於公兄之下하여 乃爲立 券曰 乾隆十年九月日에 右明文段은 屈賣兩班하여 爲償官穀하니 其㉤直千 斛이라 維厥兩班은 名謂多端하니 讀書 曰士요 從政爲大夫요 有德爲君子니 武 階列西하고 文秩敍東하니 是爲兩班이니 任㉥爾所從하라

《燕巖集》

- 주14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41.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42. ㉢을 국역하시오. ( )
- 주143. ㉣을 국역하시오. ( )
- 주144. 문맥상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
- 주145. 문맥상 ㉥의 뜻과 같은 1음절 漢字(正 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壬戌之秋七月既望에 蘇子與客으로 泛 舟하여 遊於赤壁之下하니 淸風은 徐來하 고 水波는 不興이라 舉酒屬客하여 誦明 月之詩하고 歌窈窕之章이러니 ㉠少焉에 月出於東山之上하여 ㉡徘徊於斗牛之間 이라 白露는 橫江하고 水光은 接天이라 ㉢縱一葦之所如하여 凌萬頃之㉣茫然하니 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하고 飄飄乎如遺世獨立하여 羽化而登仙이라 於是에 飲酒樂甚하여 扣舷而歌之하니 歌 曰 桂棹兮㉤난장으로 擊空明兮泝流光이 로다 渺渺兮余懷여 望美人兮天一方이로 다

《古文眞寶》

- 주146. 문맥에 맞게 ㉠의 뜻을 쓰시오. ( )
- 주147. ㉡을 국역하시오. ( )
- 주148. ㉢을 국역하시오. ( )
- 주149.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주15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3. 6. 15.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 제112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 객관식 ■

1	④	6	③	11	③	16	①	21	③	26	④	31	③	36	③	41	③	46	④
2	①	7	①	12	②	17	②	22	①	27	①	32	①	37	④	42	②	47	②
3	④	8	③	13	④	18	③	23	②	28	③	33	④	38	①	43	③	48	③
4	③	9	④	14	①	19	②	24	①	29	④	34	③	39	③	44	①	49	②
5	②	10	②	15	④	20	④	25	④	30	③	35	④	40	②	45	②	50	①

## ■ 주관식 I ■

주1	총이말 총	주21	더위잡을 반	주41	천양	주61	到→陶	주81	搭載
주2	명협 명	주22	한스러워할 창	주42	여력	주62	灼→斫	주82	利尿劑
주3	무성할/모과나무 무	주23	豕	주43	초멸	주63	龐→龙/厖	주83	殮襲
주4	넉넉할 섬	주24	肉	주44	음예	주64	綴→徹	주84	愆憑
주5	옷터질 탄	주25	士	주45	선빈	주65	礪→墾	주85	冊封
주6	상고할 고	주26	糸	주46	연교	주66	闖入	주86	全鰵粥
주7	발 박	주27	媵	주47	예취	주67	桎梏	주87	暗礁
주8	능소화 초	주28	瘡	주48	두간	주68	殞宮	주88	瀕死
주9	만두 만	주29	瞼	주49	촌탁	주69	蝟集	주89	稜線
주10	빼어날/갑자기 당	주30	臆	주50	포복	주70	操舵	주90	睫毛
주11	상투/부엌귀신 계	주31	渙	주51	왜구	주71	鐵柵	주91	瑤
주12	쟁기/비녀장 관	주32	紘	주52	뇌선	주72	庶孽	주92	劈
주13	백성 맹	주33	齧	주53	현요	주73	僭稱	주93	枳
주14	무너질 비	주34	恢	주54	작설	주74	罹災民	주94	臻
주15	밝을 형	주35	禪	주55	실담	주75	遜色	주95	攫
주16	예쁠 윤	주36	蒹	주56	쾌척	주76	贅辭	주96	郢
주17	규소 규	주37	搨	주57	扮裝	주77	咀嚼	주97	縟
주18	작은배 부	주38	霑	주58	分掌	주78	滲透	주98	癰
주19	잘게부술 사	주39	炬	주59	寧惡無道	주79	把握	주99	幡
주20	땅이름 살	주40	黔	주60	靈惡	주80	刪削	주100	輒

# 제112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而, 且	주135	斷腸
주102	X	주119	苟, 雖	주136	한없는 안개 속 버들가지 째 수만 있다면
주103	O	주120	如, 爲	주137	伽倻山
주104	O	주121	行, 卑	주138	겹겹 봉우리를 올리니
주105	山鷄野鶩	주122	覆, 良	주139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쳤네
주106	鼠竊狗偷	주123	致, 育	주140	甗笠
주107	偃旗息鼓	주124	安, 定	주141	惶悚
주108	胥動浮言	주125	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주142	이미 제 양반을 팔아 환곡을 갚았습니다.
주109	경망스럽고 방정맞은 사람.	주126	譬若錐之處囊中	주143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주110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	주127	民欲與之偕亡	주144	값 치
주111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	주128	飲食不可甘美 救飢而已	주145	汝
주112	내부에서 일어난 변란. 형제들 사이의 싸움.	주129	온화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 덕의 기본이다.	주146	이우고
주113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주130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나게 하셨으니 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주147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서성이더라
주114	쇠귀에 경 읽기.	주131	만약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주148	한 잎의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 가는 바를 따라
주115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주132	江村	주149	茫然
주116	엷은 아이 삼 년 찾는다.	주133	釣鉤	주150	蘭漿
주117	與, 寧	주134	보잘것없는 몸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